

# 장성군 황룡강 봄 축제에 '꽃'혔다... 뮤직 페스티벌 '기대'

###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오는 10~11일 개최 뮤직 페스티벌 '국카스텐', '카더가든', '유다빈밴드' 등 무대

장성군이 다가오는 주말 황룡정원 야외무대에서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5.10~11)를 연다. 특히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장성 뮤직 페스티벌'은 이번 축제의 '꽃'이다.

꽃길축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음악'에 있다. 장성 황룡강에선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축제가 열린다. 5월에는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가, 10월에는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관객맞이에 나선다. 강변 가득 피어난 10리 꽃길을 거니는 콘셉트가 비슷하다 보니, 장성군 입장에서 봄축제와 가을축제를 차별화할 '포인트'가 필요했다.

군은 수 차례 회의와 의견 수렴 끝에 봄축제 때 '뮤직 페스티벌'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음악을 즐기기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 축제 주무대로 쓰이는 옛 공설운동장 부지는 행사 기간에만 간이 무대가 설치될 뿐, 평시에는 잡풀만 자라는 공터에 가까웠다.

장성군은 이곳에 언제든 음악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가닥을 잡았

다. 2023년부터 강변 쪽 음악분수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계단식 잔디광장을 조성했다.

잔디광장에는 약간의 경사를 뒤 어디에 앉아도 무대 쪽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배려했다. 또 야외무대 주변에는 고르게 잔디와 나무를 심어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공간을 갖춘 뒤에는 뮤지션 섭외에 공을 들였다.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콘셉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술성과 흥행성이 담보된 가수를 중심으로 초대하는 데 주력했다. 그렇게 '지역축제는 트로트가 대세'라는 공식을 깨고, 지난해 봄 장성 최초로 '10cm'와 '소란'의 무대를 선사했다.

올해 뮤직 페스티벌도 지난해의 명성을 이어가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정상급 락밴드 '국카스텐', 싱어송라이터 '카더가든'을 비롯해 유다빈밴드, 번키, 연정, 리제, 이종민 7명의 뮤지션이 봄밤을 음악으로 '적실' 예정이다.

'국카스텐'은 보컬 하현우, 기타 전규호, 드럼 이정길, 베이스 김기범으로 구성



된 4인조 밴드다. 쉬운 가사와 듣기 좋은 음악을 선보이는 모던락 밴드들 사이에서 '사이키델릭' 풍의 몽환적인 음악과 난해한 가사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멤버 개개인의 연주 능력도 출중하지만, 리더를 맡고 있는 보컬 하현우의 날카롭고 강렬한 고음은 '국카스텐'을 상징하는 '시그니처'다. 밴드 이름 '국카스텐'은 중국식 만화경을 뜻하는 독일어다.

뛰어난 작곡 능력과 노래 실력으로 정평 난 '카더가든'의 무대도 관심을 모은다. 특유의 미성하고 허스키한 음색이 어우러진 그의 목소리는 공연장에서 들었을 때 더욱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활동명 '카더가든'은 그의 본명(차정원)을 영어로 풀어 쓴 단어다. 이밖에도 봄날의 산뜻한 감

성을 전하는 유다빈밴드, 알앤비(R&B) 보컬리스트 박기 등 '귀 호감'을 시켜 줄 뮤지션들이 줄지어 황룡강을 찾는다.

한편, 구성진 트로트가 듣고 싶다면 하루 앞선 9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전야제를 추천한다. 역시 황룡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며 이찬원, 윤수현, 이수호 등의 가수들이 축제의 흥을 한껏 돋워줄 예정이다.

김한중 군수는 "장성 뮤직 페스티벌은 향유하던 공터에 야외 공연장을 만들고 실력과 뮤지션을 초청하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탄생한 콘텐츠"라며 "정상급 뮤직 페스티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많은 방문과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5만 명 다녀가 청산도에서 걸으리랴다, 별 볼 일 있는 청산도 등 인기

지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50,198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5월 4일에는 4,278명이 다녀가며 일일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올해 축제는 '청산도에서 낮밤없이 놀아보세'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청산도 슬로길 11개 코스를 걷는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청산도에서 걸으리랴다'에는 1,400여 명이 참여해 유채 꽃으로 물든 청산도의 봄을 만끽했다.

야간 걷기 프로그램인 '청산도 달빛 나이트 워크'와 은하수와 함께 인생 사진을 찍어보는 '별 볼 일 있는 청산도도 전' 최치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였다.

걷기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슬로길 플로깅'에도 많은 사람들

이 참여해 쓰레기를 수거한 후 친환경 키트를 받았다.

신규 프로그램이었던 구들장 논에서 재배한 쌀로 만든 떡을 나눠 먹는 '구들장 논 방앗간', '범바위 기(氣) 팔찌 만들기', '청산도 보이는 라디오'도 인기를 끌었다.

'청산도 주민 관광청'을 통해 축제 준비와 운영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주민 주도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주민들의 협조와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 덕분에 축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슬로시티 청산도를 찾은 분들 모두 힐링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장흥군 인구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4월 말 기준 장흥군 인구는 3만 4322명으로 전월(3만 4319명)에 비해 3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8명의 인구 증가로 6년 3개월 만의 증가세 전환에 성공한 이후 두 달 연속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장흥군 관내 출생아 수는 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명)보다 증가했다. 또한 3월과 4월에는 전입 인구가

### 장흥군, 두 달 연속 인구 증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청신호'

#### 다양한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인구 문제 적극 대응

전출 인구를 크게 웃도는 등 인구의 사회적 증가 현상도 뚜렷했다.

이 같은 인구 증가의 배경에는 장흥군이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맞춤형 인구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초수당 지원사업」을 주목할 만하다.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의 출생기초수당을 지급하여 출산

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출산율 회복을 통해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다.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 근무자, 귀촌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전입 유인책도 눈에 띈다. 전월세 거주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5년간 최대 1,320만원의 주거비를 지

원하는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사업」, 노후주택을 소유한 전입자를 위한 「전입세대 희망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등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지원 시책으로 전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출산, 양육, 학원인구 및 청년 지원, 주거,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맞춤형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벨문학도시 장흥이 매력적인 정주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 영암군가족센터, 기찬랜드서 온가족 걷기 프로그램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조은정)가 4월 기찬랜드에서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암품GO 가족품GO' 온가족 걷기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영암의 문화유산인 가야금 산조 테마공원 탐방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건강 걷기와 체험활동을 동시에 즐기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특히, 7개의 미션형 건강 걷기는 풍선 터뜨리기, 사진찍기, 판 뒤집기, 영암군가족센터 글자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동시에 이번 프로그램은 걷기에 문화 탐방과 정서교류 활동을 결합해 부모와 자녀, 부부가 함께 협력하며 정을 나누며

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되는 과정으로 설계됐다.

참여 가족들은 함께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소중했고, 미션형 걷기가 재미있었다는 반응이다.

이번 프로그램 이외에도 영암군가족센터는 다문화·한부모·맞벌이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을 지원하는 교육·문화·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061-463-2928-9에서 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062-525-9775

### 진도군,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도군은 재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했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필지는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86,289필지이며,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 조정된 1.16%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실물 경기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된 영향으

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진도군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후 처리 결과는 감정평가사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6월 26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말레이시아 차 문화 교류 전시' 개최

#### 보성다향대축제 x 카마탄축제, 국제 문화 교류 본격 추진

보성군은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와 말레이시아 사바주(州)의 대표 축제인 카마탄축제 간 문화 교류를 기념해, 6월 1일까지 한국차박물관에서 '말레이시아 차 문화 교류 전시(Malaysia Tea Culture Exchange Exhibition: Boseong x Sabah)'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사바주의 역사·문화·예술은 물론, 원주민 전통의상, 생활 도구, 전통 악기, 차 도구, 사바의 대표 차 제품인 '사바차(Sabah Tea)'까지 폭넓게 소개하며, 말레이시아 고유의 차 문화와 지역적 특색을 국내 관광객에게 선보인다.

특히 전시장 내에는 사바주의 대표 축제인 카마탄축제를 집중 조명하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축제의 유래와 전통문화의 깊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준비됐다. 또한 유기농 '보성 차'와 키나발루산 열대우림에서 재배된 '사바 차'의 공통점을 부각하며, 친환경 종이 소재로 전시 공간을 꾸며 환경과 전통이 공존하는 글로벌 전시로 주목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사바주 공식 대표단은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인 5월 1일부터 3일까지 보성을 방문해 다채로운 교류 일정을 소화했다.

대표단은 사바주 관광문화환경부 상임 부차관 알레시아 시온(Alessia Sion), 말레이시아 관광청 서울사무소장 카밀라 하니 압둘 할림(Kamilia Hani Abdul Halim), 카마탄축제위원회 의장 조안나 빈티 키팅안(Joanna Binti Kitingan), 전통공연단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보성다향대축제 개막식, 전통공연, 교류 전시 개막식, 문화관광 간담회 등에 참여했다.

사바 전통공연단은 축제 현장에서 총 6회의 전통공연을 선보이며 이국적인 매력과 생동감을 더했고, 방문객들에게 사바주의 생생한 문화를 전했다.

또한 사바주 관광청은 축제 기간, 사바주 관광홍보관을 운영해 사바차 시음 행사, 관광 기념품 증정 등으로 현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사바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어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색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리고 싶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니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우어도 보는 것.  
한드서 기억할 것.  
잠시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